

교원

고전의 역사·문학적 가치를 그대로 어린이 책으로 옮겨

정지인 | 교원 전집1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으로 우리 역사가 절박한 위기의 순간을 맞고 있는 이때, 우리 어린이들에게 '역사'는 어떤 의미를 지닐까? 사실 어릴 때부터 입시를 위해 공부해야 하는 교육 현실에서 올바른 역사 의식을 정립하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외부 환경 때문이라도 더욱 우리의 소중한 역사를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먼저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이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이 즈음에서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를 논하지 않을 수 없다. 두 고전은 고조선부터 통일 신라에 이르는 우리 역사가 재미있게 녹아들어 있어, 어린이들의 역사에 대한 흥미를 이끌어낼 적절한 소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고전을 다룬 어린이책은 지나치게 학습적이거나 원전을 왜곡한 옛날 이야기로 둔갑된 경우가 많았다. 이런 아쉬움을 배경으로 탄생한 《테마 삼국유사·삼국사기》는 고전의 역사적·문학적 가치를 그대로 어린이 책으로 옮겨 놓았다.

《테마 삼국유사·삼국사기》는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를 한 전집에 아우른 사상 초유의 기획으로 2002년 겨울에 출간되어, 독자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재미, 감동, 지식을 전달해 주고 있다. 두 고전에서 엄밀히 가려 뽑은 50가지 이야기를 원전에 충실하면서도 재미있게 풀어 써서, 어린이들이 쉽게 고전의 감동을 느끼고 역사에 대한 흥미를 키우게 했다.

고조선과 삼국의 건국신화, 조상의 삶과 지혜가 깃든 설화, 고대가요, 향가 등 다양한 형식의 구성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찾게 하고 자부심을 심어 준다. 권말에는 이야기 해설, 유적·유물

사진, 역사 상식 등을 수록하여 지식을 높여 주고, 별책은 고대의 역사 전개와 주요 인물을 정리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역사 이해를 돕는다.

일러스트에도 지대한 공을 들였다. 주제에 따른 다양한 기법의 수준 있는 일러스트는 고전의 품격을 유지시키면서, 어린이들의 작품 이해를 돕고 감성과 상상력을 일깨운다. 또한 각 시대의 생활사를 꼼꼼히 살펴 당시의 의복, 유물, 건축물 등을 충실하게 재현했다. 역사물에 있어서 가장 까다로운 고증과 시각 자료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국내외 유적지를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촬영했고, 박물관, 신문사, 군청 등 수많은 기관과 개인의 협조를 얻어 사진자료를 모았다. '연오랑과 세오녀'의 유적지는 해군 부대를 세 번이나 방문해 겨우 촬영을 허락받을 수 있었다. 또 글과 그림 감수를 위해 역사학자 이이화 선생님을 여러 번 찾았는데, 추운 겨울날 커다란 목판화 20여 장을 킁킁거리며 들고 갔던 일은 아직도 생생하다.

마지막으로 신화, 인물, 신비, 향가의 네 가지 테마로 이야기를 나눠 재구성함으로써 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점도 내세우고 싶다. 《테마 삼국유사·삼국사기》 이후 출판시장에 유사 기획물들이 출간되고 있다. 본사의 《눈으로 보는 한국역사》 이후, 어린이 출판시장에 또 한 번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 같아 뿌듯하다. 한 권 한 권 정성껏 만든 《테마 삼국유사·삼국사기》, 이 책을 읽은 어린이들이 민족의 얼과 슬기를 현대에 사는 삶의 지혜로 되살릴 수 있기를, 나아가 우리 역사의 위기 앞에서 민족 뿌리에 대한 단단한 자긍심을 지니고 세상에 설 수 있기를 바란다. **✎**



파라북스

자신을 사랑하고 싶다면 치러야 할 '다섯 가지 의식'

조은주 | 파라북스 기획팀장

스페인의 탐험가, 폰세 데 레온Ponce de Leon은 일찍이 젊음의 샘을 찾아 플로리다로 긴 항해를 떠났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가 애초에 목적지로 삼은 것은 라마들 간에 전해오는 믿을 만한 건강서였다. 티베트의 건강법을 소개한 책은 예상보다 많았다. 그리고 대부분은 마치 할리우드판 영화를 보는 것처럼 매끈한 요가책으로 둔갑해 있었다. 그래서일까. 그 가운데 유난히 평범한 책 한 권이 눈길을 끌었다. '젊음의 샘에 관한 고대의 비밀' 이라...

1937년에 초판이 나온, 겉보기와 달리 대담한 제목의 이 책이 어찌서 여태 베스트셀러로 호평받는지 궁금해졌다. 게다가 이 책의 소개대로 '다섯 가지 의식'을 통해 젊어질 수 있다면, 아니 최소한 건강해질 수 있다면 게으른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도 반가운 일일 것이다.

한 달쯤 기다린 끝에 책이 도착했다. 뜻밖이었다. 저자인 피터 켈더와 브래드포드 대령의 우연한 만남이라는 실제 사건에서 이 책은 시작된다. 젊음의 샘을 찾아 티베트로 떠난 대령이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오면서 이야기는 마치 한편의 소설처럼 놀랍게 전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령이 마지막으로 보내온 편지를 끝으로 책을 덮고 냈을 때의 느낌이란 마치 인생에 대한 소중한 가르침을 접한 기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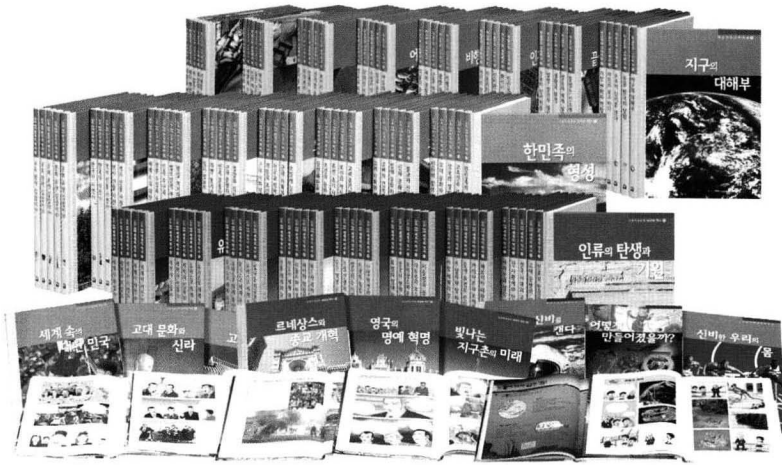
책은 '젊음의 샘'은 우리 몸 안에 있으며 다섯 가지 의식이 그 열쇠라고 말하고 있다. 물론 저자 역시 다섯 가지 의식만을 과신하는 것은 아니다. 한 종류의 음식을 적게 그리고 천천히 먹는 법, 목소리를 통해 젊음을 유지하는 법, 자세와 태도는 물론이고 확신과 믿음을 통해 초의식을 지배하는 만트롬에 이르기까지 몸

과 정신을 아우르는 지혜를 이 책은 담고 있다. 이처럼 지극히 단순한 진실에 회의를 품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점에 매료되었다. 대령의 말대로 인간의 몸과 마음이란 단순함을 따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지 모른다.

번역을 부탁드리고자 홍신자 선생님을 찾아뵙을 때, 선생님은 일견에 'too simple' 하다는 평으로 우리를 돌려보냈다. 40년째 요가와 명상을 실천하신 분의 고견이라 실망감을 내색할 순 없었다. 그러나 약속대로 두고 온 책을 정독하신 모양인지, 선생님계선 이튿날 전화를 걸어 번역을 맡겠다는 뜻을 밝혀오셨다. 훗날 번역된 원고와 함께 보내주신 카피에는 선생님께서 이 책을 선택하신 이유가 엿보인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고 싶다면 이 책을 자신에게 선물하십시오.' 선물. 그것은 우리가 이 책에서 받는 가장 강렬한 느낌이기도 했다. 젊음의 샘이란 특별한 비밀이나 허황된 꿈이 아닌 라마들의 소박한 삶에 배인 단순한 지혜임을 이 책은 말하고 있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느낌 그대로 이 책을 재구성하기로 했다. 독자들이 원제에 현혹되지 않도록 제목도 분위기도 달리하였다. 도움을 주신 분들 모두 이 책에서 받는 느낌이 다르지 않았기에 모든 과정은 순조로웠다. 다섯 가지 의식을 직접 해보기 전까지 대령의 말에 의구심을 품었던 저자는 대령에게 묻는다. "정말 대령님의 말씀처럼 젊음의 샘이란 그렇게 단순하단 말인가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독자에게 알리는 데 일조한 이상 우리 역시 같은 질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책은 우리의 대답이며, 이제부터 독자들과의 대화를 듣고 싶다. *******

학습만화 시리즈 '한국의 역사', '세계의 역사', '과학백과'
 '한국의 역사' 시리즈(전40권) 박화목 외 지음 | 박성봉 감수 | 각권 104쪽 내외 | 값 490,000원
 '세계의 역사' 시리즈(전40권) 류재택·조상제 감수 | 각권 104쪽 내외 | 값 490,000원
 '과학백과' 시리즈(전40권) 김일혁 외 감수 | 각권 104쪽 내외 | 값 490,000원



한국데카르트

수능이 기다려지는
즐거운 만남

조현숙 | 편집국 과장

학습만화 시리즈 '한국의 역사', '세계의 역사', '과학백과'는 2003년 소비자만족대상 HIT상품 수상작이자 친근하고 생동감 넘치는 만화로 역사와 과학의 기초를 다져 주는 책이다. 소비자가 만족한 책이라는데 더 이상 무엇을 바랄 수 있을까.

'한국의 역사'는 선사시대부터 시작해 붉은 악마와 더불어 한국인의 단합된 스포츠 정신을 보여 주었던 2002 한·일 FIFA 월드컵, 소수의 실수로 많은 생명을 앗아 간 대구 지하철 참사,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17대 총선에 이르기까지 천여 컷이 넘는 현장사진으로 말빠르게 꾸며 한국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세계의 역사'는 고대 문명의 태동부터 미국 뉴욕의 9·11 테러, 이스라엘 분쟁의 격화, 미국의 이라크 침공, 사스와 조류독감의 발생과 전파, 끊이지 않는 테러와의 전쟁, 사담 후세인의 체포 등 최근의 사건까지 현장사진과 함께 꾸며 세계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가장 최근의 사건과 현장사진까지 입수해 구성할 수 있는 것은 한국데카르트만의 저력이 아닌가 한다.

'과학백과'는 과학이라면 머리부터 쥐어뜯는 현실에서 진보하여 과학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책이다. 우리 주변의 신기한 자연현상에서부터 첨단 과학분야에 이르기까지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광범위하게 실었다. 선명하고 진귀한 사진

자료와 빠른 이해를 위해 배치한 도표들은 관찰과 실험을 증시하는 과학학습의 특성을 살리고 부족한 학교교육 내용을 보충해 주기에 충분하다.

여기에 플러스 하나!

'한국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 권말에는 수능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요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논술문제를 수록하였다. 듣기만 해도 고리타분하고 지겨운 논술. 마음 같아선 확 제쳐 놓고 싶겠지만 현재의 수능 제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분야이다. 하지만 논술이라는 것이 사실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히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수험생들에게는 언제나 부담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데카르트는 수험생의 입장이 되어 보기로 했다. 또한 논술 본연의 자세에서 시작해 매듭을 풀어 보기로 했다. 어찌 해야 논술이라는 복병을 살살 구워삶을 수 있을까.

정답은 하나였다. 한국사이든, 세계사이든, 과학이든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한다는 것. 기초를 튼튼히 다져 놓는다면 까다로운 논술이라고 문제가 될 리가 없다. 한국데카르트의 '한국의 역사', '세계의 역사', '과학백과'로 확실하게 기초를 다져 놓는다면 수능시험이 기다려질 것이다. **☞**



한국DSM

어린이들의 영원한 친구 곰돌이 푸우

김은선 | 편집장

월드 디즈니 애니메이션 캐릭터 중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곰돌이 푸우와 친구들! 푸우와 친구들이 보여주는 사랑과 우정에 관한 재미 있고 발랄한 이야기들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 용기를 주는 영원한 고전임에 틀림이 없다. 그 곰돌이 푸우 이야기가 《디즈니 첫발견 자연과학》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새롭게 선을 보인다. 이 책은 종전의 곰돌이 푸우 동화들과는 달리, 어린이들에게 기초 과학의 원리를 깨우쳐 주기 위해 <첫발견 과학동화>(전30권) <첫발견 학습동화>(전30권) <첫발견 탐구동화>(전15권) <첫발견 자연관찰>(전14권) 등 네 가지 시리즈로 구성돼 있다.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곰돌이 푸우와 그 친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궁금증과 호기심을 과학 원리와 접목시킨 동화로 구성, 자연스럽게 유아원, 유치원 과정의 어린이들이 꼭 알아야 할 기초 생활과학, 자연과학의 원리와 현상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 주는 자연과학 입문 총서다.

과학동화와 학습동화가 한 세트로, 과학동화가 동화를 통해 과학 원리를 가르쳐 준다면, 학습 동화는 워크북 역할을 하며, 과학동화에서 제기된 의문점들과 현상들을 풍부한 그림과 해설을 통해 체계적으로 소개한다. 탐구동화 역시 동화를 통해 테마별로 자연 현상을 소개하고 있으며, 자연관찰은 디즈니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총출동해 사진과 일러스트로 설명하는 테마별 자연관찰

학습으로 지금도 디즈니에서 그 시리즈들이 계속 출간되고 있다.

곰돌이 푸우 동화들이 주는 매력과 인기의 비결은 단연코 어린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점이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작고 보잘 것 없는 아이들의 세상사지만 그 동화 속에 녹아 있는 우정과 사랑, 희망과 용기, 양보와 배려, 도전 정신은 한낱 애니메이션 캐릭터 동화라고 치부해 버리기에는 안타까운 생각마저 든다. 어린이들에게는 그만의 세계와 언어가 있고, 어린이들이 보는 세계를 그 눈높이에 맞춘 시각과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곰돌이 푸우 동화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그토록 열광하는지도 모르겠다.

《디즈니 첫발견 자연과학》 시리즈 역시 철저히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기획된 과학동화다. 권위 있는 월드 디즈니가 4년여의 기획 끝에 심혈을 기울여 출간한 이번 작품은 이미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는 베스트셀러에 올라 어린이들의 폭발적인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 번역물이라서 편집을 하면서도 문장 하나, 단어 하나까지 꼼꼼하게 챙기느라 수고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게다가 대형 전집물이라 나름대로 힘든 작업이었지만, 어린이들에게 좋은 책을 보급한다는 일종의 사명감과 소명 의식으로 즐겁고 보람된 마음으로 일했다. 앞으로도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더 할 나위 없지만 이번 시리즈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기초 과학의 원리와 현상들을 체계적으로 쌓아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은선**